강인규 시장 "혁신도시 시즌2 속도내야"

균형발전위원장 면담 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국가 균형발전 마중물…혁신도시 완성" 건의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나주시 제공〉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지난 8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의 공동건의문이 발표된 가운데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 등 혁신도시 시즌2 조기 추진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국가균형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빛가람혁신도시의 핵심 산업 성장을 견인할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했다.

강 시장은 "혁신도시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1차 이전한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군 16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연구·부속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나주 혁신도시는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너지공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시즌2와 함께 강 시장은 낙후된 영산포 이창동 지역 주민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균형위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재도약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광주·전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주 혁신도시가 가진 역량과 여건을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의 연대와 공조에 힘쓸 것"이라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 역할을 주도하고 그 중심에 나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제40회 화순 군민의 날' 기념식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충곤 군수, 최기천 군의회 의장, 군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화순군 제공〉

구충곤 군수 "일상·경제 회복 최선"

'화순 군민의 날' 행사…군민들 '줌' 통해 참여

군민 화합과 단결을 위한 화순군 '제40회 군민의 날' 기념식이 최근 열렸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구충곤 군수, 최기천 군의회 의장, 군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군민들은 줌(ZOOM)을 통해 기념식에 참여했고 화순군 공식 유튜브(채널명 화순군청)로 생중계됐다.

구충곤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기념식을 준비하며 민선 6·7기에 '명품 화순 행복한 화순' 실현, '화순 사는 자부심'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일들을 되짚어 봤다"며 "코로나19 극복,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 '화순 사는 자부심'의 격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군수는 ▲예산 7천억원 시대 개막 ▲전남 최초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농민수당 지급, 맘 편한 100원 택시, 1천원 버스 운행 ▲백신·바이오 산업 기반 확충 등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화순의 100년과 현재,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화순 발전상을 담은 영상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화순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안병욱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교육·문화·체육 부문에 세계평화작가로 알려진 한한국 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이 수상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하자는 의미에서 비대면으로 기념식을 열었다. /화순=이병철 기자

나주보건소, 방역 의료진 지친 마음 보듬기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연계 '마음안심버스' 운영

나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방역 최전선에서 쉼 없이 일해 온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는데 주력하고 있다.

나주시 보건소는 14일 "최근 호남권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총 5대를 운영, 방역 현장 의료진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버스 내 공간과 브레인 트레이닝 등 장비를 활용해 정신건강·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 측정 결과를 토대로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윤상식 나주보건소장은 "정신건강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 지원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마음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추진

나주시, 균형위 주관 공모 도전

나주시가 영산포 지역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나선다.

나주시는 14일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용역보고회'를 갖고 공모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다.

신청 대상은 ▲불량도로(4m 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 비율 50% 이상 ▲30년 이상 노후 주택비율 5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 9% 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선정 시 4년간 국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영산포 지역 관문인 영산대교에서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사면과 노봉산 밑 골모실 정비 등을 통해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나주=김영수 기자

화순군,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호평

화순군은 14일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축사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이 축산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8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14개 농가에 2천6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을 투입, 드론을 활용한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 사업을 완료했다.

열차단재 도포 시범 사업을 실시한 농업인은 "가축 폐사율이 줄고 젖소 착유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어 내년 여름에도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열차단재 도포 사업 내년 시행과 확대 실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 옛 터미널-부국주택 도로 완공

18억 투입…교통편익 증진 기대

화순군은 14일 화순읍 구 터미널에서 부국주택까지 길이 92m, 폭 8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사진)를 개설했다.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한 도시계획도로에는 군비 18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최근 입주가 시작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입 차량 정리, 옛 터미널 주변 도로 교통 체증 해소, 보행자 교통 편의 향상 등이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교리 상업지역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